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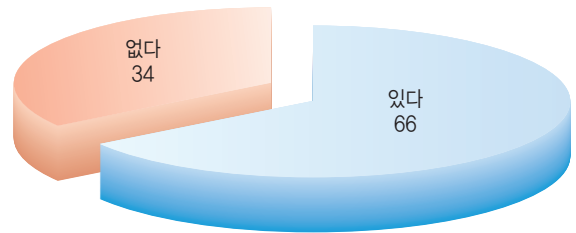
이번 FOCUS는 최근 전북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요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전국 전북 전문점 3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9. 7. 6 ~ 15)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북 전문점, 10개점 중 6곳 이상이 '최근 물량 공급에 어려움 있다'고 응답

- 조사대상 전북 전문점 중 66%의 음식점이 '현재 물량 공급 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를 물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북 전문점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의 85%만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필요한 물량의 15%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전북 전문점의 물량 공급 문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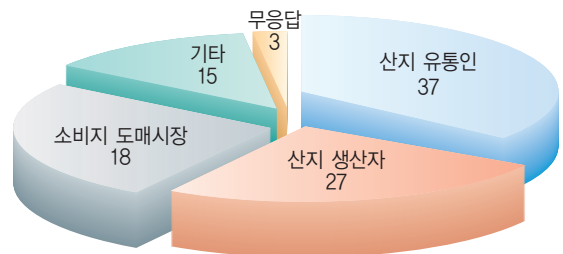


전북 전문점 물량 조달지역, 소비지보다는 '산지'에서 주로 공급받아

- 물량 조달처를 산지와 소비지로 구분하면, 약 80%의 전북 전문점들이 인천, 하남, 노량진 등의 소비지 도매시장이 아닌 산지에서 직접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량 조달처별로 보면, '산지 유통인'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생산자' 27%, '소비지 도매시장' 18%, '기타' 15%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전북 전문점의 주 거래처〉

(단위 : %)



주 : '기타'에는 자가 양식장에서 직접 조달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음

전북 전문점, 메뉴나 조리법까지 변경하는 사례 늘어

- 조사 대상 전북 전문점 중 30% 이상은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전북 전문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kg당 20마리 이상 작은 크기의 물량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전북 전문점들은 전북 메뉴를 다른 메뉴로 대체하거나 전북 요리에 사용하는 전북 개수를 조정하는 등 조리법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양식어업인들이 작은 크기 양성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가격 수준이 높게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작은 크기 출하를 자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이 크기의 전북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복 수산물관측

제166호 | 2009년 8월

2009년 8월 5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5283 발행·편집인/ 강중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4층 TEL. (02)2105-4920 FAX. (02)2105-49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격, 재고동향 등 수산물 전반의 수급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 전복 생산량 증가, 산지가격 강세

8월 생산량 증가하고, 산지가격 강보합세 전망

- ▶ 7월 전복 출하량은 전복삼계탕 등 여름철 보양식에 의한 전복 수요 증가로 전월보다 17%, 작년 동월보다 35% 증가한 791톤이었다. 8월에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와 함께 휴가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7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7월 활전복 수출량은 일본 내 관광지 전복 수요로 전월보다 5% 증가한 92톤이었다. 8월에도 주 수출국인 일본의 명절(오봉; お盆)과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7월에 비해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 7월 완도의 활전복 산지가격은 모든 크기에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작은 크기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는 보양식에 이용되는 작은 크기의 전복 소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8월에도 보양식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식어가들이 추석 판매를 겨냥하여 전복 출하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지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8월 표본어가 조사 기간은
8월 19일(수)~23일(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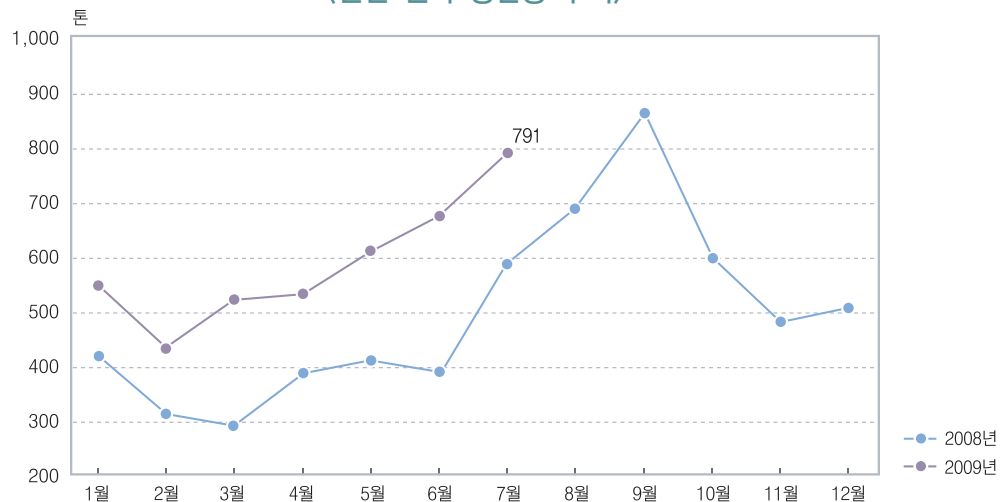
생산동향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로 전복 출하량 증가

7월 전복 출하량, 전월 대비 17% 증가한 791톤

- 7월 전복 출하량은 전월보다 17.0%,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4.8% 증가한 791톤이었다. 이는 7월에 접어들면서 전복삼계탕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전복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간 전복 생산량 추이〉



모든 지역 출하량 증가

- 7월에는 여름철 보양식 소비 증가에 따른 전복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전복 출하량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완도 지역의 출하량이 588톤으로 전월보다 18.8% 증가했고, 기타 지역은 12.2% 증가한 203톤이었다.
- 이러한 전복 출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추석 출하를 위해 전복을 더 키워 판매하려는 양식어가들이 많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지의 유통상인들이 소비지에 전복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별 전복 생산 동향〉

(단위 : 톤,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누계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누계
합 계	587	2,805	627	676	791	17.0	34.8	4,144
완 도	508	2,498	566	495	588	18.8	15.7	3,378
기 타	79	307	61	181	203	12.2	157.0	766

주 : 2009년 7월은 잠정치이고, 기타지역은新安·해남·진도·여수 등임

작은 크기 출하량은 증가, 큰 크기는 감소

- 보양식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작은 크기 전복의 수요가 크게 늘어 kg당 16~20마리 크기의 전복 출하량이 6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그런데 kg당 20마리 내외 크기는 양성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이는 양식어가들이 현재의 높은 가격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작은 크기의 출하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크기별 전복 생산 동향〉

(단위 : 톤,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누계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누계
합 계	587	2,805	627	676	791	17.0	34.8	4,144
8마리 이하	62	329	35	47	60	27.7	-3.2	345
9~11마리	155	690	107	139	140	0.7	-9.7	858
12~15마리	178	844	134	166	210	26.5	18.0	955
16~20마리	138	687	187	171	257	50.3	86.2	1,135
21마리 이상	54	255	164	153	124	-19.0	129.6	811

주 : 2009년 7월은 잠정치

전복 양성물량 약 7억 3천만 마리

-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양성물량은 작년 동월의 6억 6,100만 마리에 비해 약 11% 증가한 7억 3,000만 마리였다. 이는 시설량 증가에 따라 2007년산에 비해 2008년산 치패 입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2년산과 3년산 전복은 언제든지 출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양성물량은 약 1억 7,900만 마리로 작년 동월에 비해 25% 가량 증가했다.

〈전복 양성물량〉

(단위 : 만 마리)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
합 계	73,028	31,266	23,899	15,462	2,401
완 도	55,599	22,731	19,032	12,385	1,452
기 타	17,428	8,535	4,867	3,077	949

주 : 1년미만(2008년산)은 2008년 5월 경에 생산된 종묘가 치패로 입식된 것을 나타내고, 1년산(2007년산)은 2007년 5월, 2년산(2006년산)은 2006년 5월 경에 생산된 전복 종묘임

7월 전복 양성상태 양호

- 완도를 중심으로 다시마 작황이 좋아 먹이 공급에 문제가 없고, 수온도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 전복 양성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동향 7월 활전복 산지가격 상승

7월 활전복 산지가격 상승

- 7월 완도의 활전복 산지가격은 모든 크기에서 전월보다 상승했는데, 작은 크기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는 보양식으로 전복 소비가 많이 늘면서 작은 크기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모든 크기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kg당 8마리와 10마리의 큰 크기 가격이 3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 흑산도수협 의 경우에도 7월 가격이 전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완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작았다.

〈전복의 산지별 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6월	7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소안수협 노화지점 (완도군)	감모율 (11.5%)	8마리	42,000	51,333	54,667	6.5	30.2
		10마리	36,000	43,667	47,333	8.4	31.5
		12마리	34,000	35,667	39,333	10.3	15.7
		15마리	31,000	32,000	35,333	10.4	14.0
		20마리	27,000	27,333	30,667	12.2	13.6
흑산도 수협 (신안군)	-	8마리	41,000	50,000	50,667	1.3	23.6
		10마리	35,000	42,000	43,667	4.0	24.8
		12마리	33,000	34,000	35,333	3.9	7.1
		15마리	30,000	31,000	32,333	4.3	7.8
		20마리	25,000	26,000	27,667	6.4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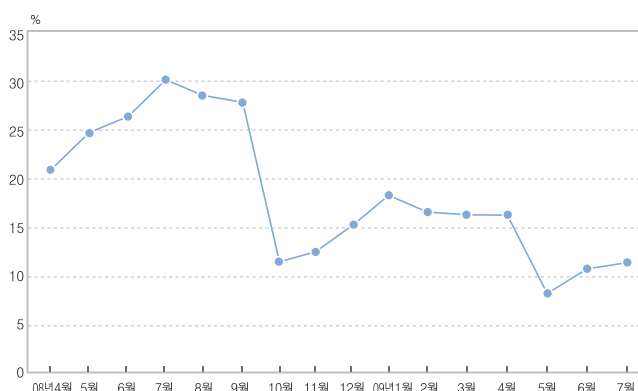
주 : 1) '산지가격'은 전복 생산자의 수취가격임

2) '감모율'은 2009년 7월에 적용된 것으로 관측센터의 표본여가를 통해 조사한 것임

자료 : 각 수협

- 7월 완도의 감모율은 평균 11.5%로 지난달보다 다소 상승했다.
- 감모율(loss)을 고려할 경우, 소안수협 노화지점의 kg당 10마리와 20마리 크기의 실질가격은 42,451 원(작년 7월 : 27,994원), 27,828 원(작년 7월 : 20,995원)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각각 51.6%, 32.5% 상승했다.

〈완도지역의 전복 감모율 추이〉



자료 : 당 센터 전복 표본여가 조사 결과임

7월 도매가격, 최근 3년 내 최고가

- 7월 활전복 도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7월의 가격은 전북 관측을 시작한 200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 시장별로 보면 인천활어도매시장과 하남활어도매시장 모두 kg당 4,000~6,000원이 상승했다. 특히 kg당 12~20마리 크기의 가격 상승폭이 다른 크기들에 비해 컸다. 하남활어도매시장의 경우 kg당 15마리 크기의 가격이 6,000원 상승했다.

〈활전복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6월	7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인천활어도매시장	8마리	50,000	58,000	62,000	6.9	24.0
	10마리	42,000	48,000	52,000	8.3	23.8
	12마리	37,000	38,000	44,000	15.8	18.9
	15마리	35,000	36,000	40,000	11.1	14.3
	20마리	30,000	31,000	36,000	16.1	20.0
하남활어도매시장	8마리	40,000	51,000	56,000	9.8	40.0
	10마리	37,000	43,000	47,000	9.3	27.0
	12마리	35,000	38,000	43,000	13.2	22.9
	15마리	33,000	35,000	41,000	17.1	24.2
	20마리	27,000	30,000	34,000	13.3	25.9

주 : 도매가격은 시장에서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 각 시장

- 노량진수산시장의 7월 활전복 경매량은 44.5톤으로 지난달보다 7.8% 증가했으며, 경락가격은 3.5% 상승한 kg당 34,517원이었다.

대형마트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약보합세

- 7월 대형마트 활전복 소비자가격은 지난달과 비슷한 kg당 63,770원에 거래되었다. 이 가격은 작년 동월보다 12.2% 낮은 수준이다.

〈활전복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6월	7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		72,616	63,990	63,770	-0.3	-12.2
바다마트(바다회상)		101,143	99,929	99,902	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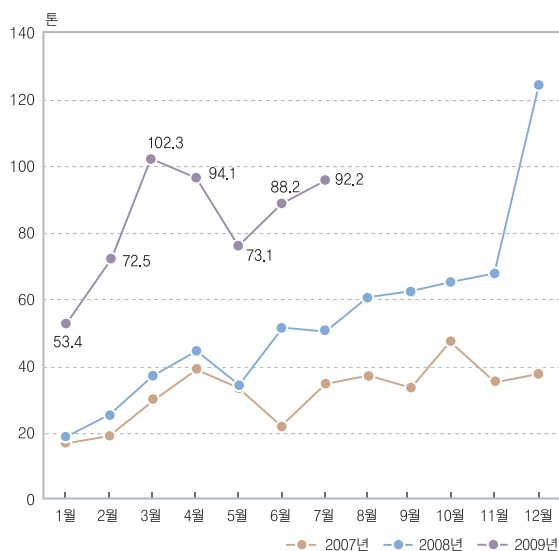
주 : 2009년 7월의 가격은 잠정치임

수출입동향

7월 수출량, 전월 대비 5% 증가한 92톤

- 7월 활전복 수출량은 일본 내 휴가철 관광지 전북 수요가 늘어 전월에 비해 4.5% 증가한 92.2톤이었고, 작년 동월 수출량보다 88.8% 증가한 수준이었다.
- 수출단가는 국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9.9% 상승한 kg당 32.2달러였는데, 이는 작년 동월보다는 4.1% 낮은 수준이었다.
- 한편, 7월 활전복 수입량은 전월보다 감소한 455kg이었고, 단가는 kg당 70.1달러였다.

〈활전복 수출 추이〉



주 : 2009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해외동향

한국산 활전복 도매가격, 전월보다 12% 상승

- 7월 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의 활전복 도매가격은 한국산과 일본산 모두 상승했다. 한국산은 지난달에 비해 11.7% 상승한 kg당 4,342엔이었고, 일본산은 16.7% 상승한 kg당 5,432엔이었다.
- 한편 한국산과 일본산 활전복 모두 작년 동월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되었다.

〈일본 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의 활전복 도매가격 추이〉

(단위 : 엔/kg, %)

구 분	2008년	2009년			
	7월	6월	7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한국산	4,220	3,888	4,342	11.7	2.9
일본산	5,084	4,656	5,432	16.7	6.8

주 : 2009년 6월은 확정치, 2009년 7월 가격은 중순까지 가격임

자료 : 일본 오사카중앙도매시장

생산 및 가격전망

8월 출하량 증가, 산지가격 강보합세 전망

8월 전북 출하량, 7월보다 증가할 듯

- 8월에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와 함께 휴가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량은 7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에는 10월 초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전북 수요 증가로 인해 양식어가들이 전북 출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수출량, 일본의 명절로 인해 소폭 증가할 듯

- 8월에는 일본의 명절(오봉; お盆)과 휴가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7월에 비해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산지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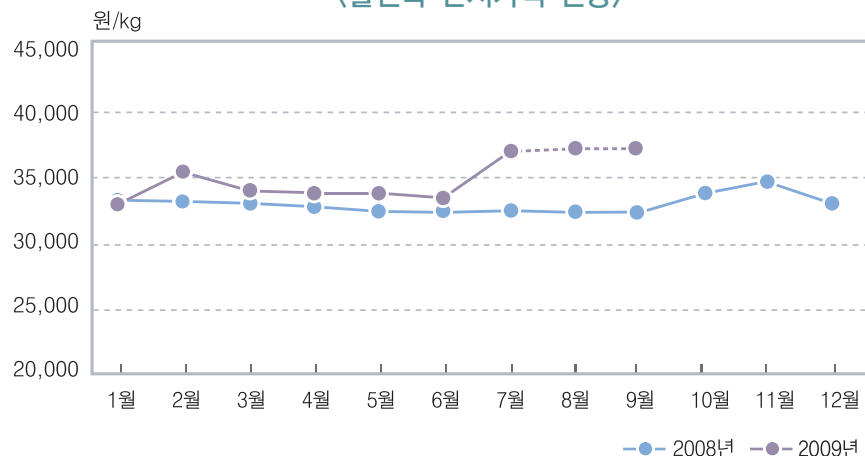
8월 전북 산지가격, 강보합세 전망

- 8월에도 보양식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식어가들이 추석 판매를 겨냥하여 전북 출하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지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9월 전북 산지가격, 8월 수준을 이어갈 듯

- 9월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식어가들이 출하를 늘릴 것으로 보이고, 선물용 등 전북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산지가격은 8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다.

〈활전복 산지가격 전망〉



주 : 2009년 7월, 8월은 전망치이고, kg당 12~15마리 기준임